

# 민주 '미투 변수'에 1당 전략 고심



정봉주 “성추행 보도는 대국민 사기극”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안희정 쇼크’ 민병두 성추행 의혹 의원직 사퇴

### 현역의원 출마 2~3명 수준 관리 어려워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인사들을 겨냥해 잇따라 터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론이 어디까지 악화될지 몰라 선거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가다듬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른바 ‘안희정 쇼크’에 이어 민병두 의원까지 10년 전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성폭행·성추행 의혹 논란이 커지면서 지방선거 승리와 원내 1당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다소 불투명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현역의원 지방선거 출마 문제와 관련해 애초 김영춘·이게호 의원을 불출마시키는 것으로 1차 정리한 뒤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경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2차 정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인 김영춘 의원은 11일 부산시장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게호 의원

도 12일 당의 출마 자제 권고를 수용하면서 전남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그간 현역의원 출마 숫자를 2~3명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원내 1당 유지가 어렵고 이 경우 지방선거에서 ‘후보 기호 1번’ 확보나 후보자 국회 원 구성 협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 의원이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데다 충남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안희정 마케팅’을 하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불륜 의혹을 받으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특히 이날 당 지도부의 재고 요청에도 민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 제출을 강행할 경우 의석이 120석으로 줄면서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116석)과의 의석 차가 4석으로 줄어든다. 더욱이 박 전 대변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충남지사에 도전한 양승조 의원의 본선 진출 가능성도 이전보다는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박영선·우상호(이상 서울), 박남춘(인천), 이상민(대전), 오세재(충북) 의원 등 현역의원 다수가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수도권외의 경우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현역의원이 출마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지사는 김영주 의원의 차출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목표대로 현역의원 출마를 2~3명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에 우세했던 지방선거 분위기가 ‘미투’ 폭로를 계기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 고민거리다. 본선 경쟁력이 이전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 출마에 대해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안희정 쇼크 등이 있기 전에는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서적으로만 보면 사실상 평평해진 것 아니냐”면서 “지방선거 목표를 제시했던 이른바 ‘9+알파(α)가 현실이었다면 지금은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 광주교육감 선거, 장휘국 vs 시민후보 양자대결 구도

### 최영태·이정선·정희곤 시민경선...19일부터 선거인단 모집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교육감 선거 구도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장휘국 현 교육감과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을 통한 단일후보 간 1대 1 구도로 판이 짜여지는 형국이다.

장 교육감이 오는 5월 25일 후보자 등록 시한까지 현직을 유지한 뒤 3선 도전에 나서기로 한 반면 나머지 입자 3명이 나란히 광주혁신교육감 시민경선추진위원회(이하 시민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일보와 만나 “고민 끝에 시민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

다”며 “저의 3선 도전과 시민경선 불참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달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월달 후보자 등록 시한까지 행정공백 없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이어 “지난 8년간 시민들 눈높이에 부응하겠지만 광주교육을 민주적으로, 혁신적으로 이끌려고 애써왔다”며 “이명박·박근혜 집권 8년 동안 광주 교육을 지켜왔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옛 정부의 실정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부단히 애써왔다”고 강조했다.

현 교육감에 도전장을 낸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를 비롯한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정희곤 전 광주시의원 등 입자 3명은 ‘시민경선’에 참여했다.

최 교수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지난 8년 동안 광주교육은 변화 속도가 더디거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 역량도 크게 떨어졌다”며 “시민경선에 참여해 광주교육을 새롭게 설계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선 참여 후보를 마감한 시민경선 추진위는 오는 15, 16일 경선 룰을 합의하고 이르면 19일부터 시민 선거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

## 6·13 선거 현장

### 광주시장 후보

#### 민형배 “일베, 비난도 논리 맞게 해야”



민형배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2일 최근 보수 성향의 ‘일베스트’(일베) 등이 비난한 자신의 ‘광주공화국’ 슬로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일베 등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밝힌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겠다는 글귀이며 영어 명칭 ‘Republic of Korea’(코리아 공화국)도 고쳐야한다”며 “공격을 하더라도 말이 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계층간 공존을 추구하는 ‘공화정’은 근대사회가 만들어 낸 위대한 정치 발명품이며 그 계급·계층이 노동하고 생활하는 ‘지역’의 권리까지를 상호인정하는 체제가 자치분권 사회”라고 덧붙였다.

#### 양향자 출마 회견 “정당당당 경선 원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을 한 뒤, 전략공천설에 대해 “정당당당 경선을 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 중인 양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자신과 관련한 여성후보 전략공천설에 거리를 뒀다. 그는 “광주는 전략공천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라면서 “정당당당한 경선을 원하며, 그렇게 이기고 당선해야만 시정운영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반도체·경제·미래의 가치로 무장한 양향자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 민주 광주시당 원로들 이병훈 캠프 방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원로 고문들로 구성된 ‘실버위원회’ 회원 20여명이 최근 이병훈 <사진>광주시당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민주당 광주시당 후보들의 공경 경쟁을 당부했다. 12일 이병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후보 사무실을 찾은 실버위원회 조수용 회원은 “지난 대선의 승리 과정에 광주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광주시당 선거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후보자들이 정책 위주의 선거운동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체 참석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광주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이 후보가 이번 광주시당선거에서 깨끗한 경쟁을 통해 선전하기를 바란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박혜자 “당 위해 불출마 이개호 존경심”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혜자 예비후보(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변인·19대 국회의원)는 12일 “이개호 국회의원의 전남지사 불출마 선언을 접하면서 당을 위한 쉽지 않은 결정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심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개호 의원의 이번 선택은 2016년 탈당사태 이후 두 번째로 당을 위해 선택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선택이 당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큰 주춧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을 위한 큰 결심에 뜻을 함께하며 어려운 시절 당을 함께 지켰던 동지로서 마음속 깊이 흐르는 동지애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 조성철 지역발전자문위원 남구청장 출마



조성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 예비후보는 “남구는 구시가지와 신흥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자족기능과 경제적 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구 활력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남구와 나주시가 함께 관리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특별행정구역 선포 ▲혁신도시 내 고품격기물연료 처리장 가동을 위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 구성 ▲벤티크·도시근교형 문화관광 캠퍼스 조성 ▲청년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 윤난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윤난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2일 “병원아동보호사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앞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11일까지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박람회에 광산구는 지역사회와 협업해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성과를 출품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에 윤난실 후보는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정부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성과를 확인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자 주최한 첫 번째 행사로서 수상의 의미가 크다”면서 “광산구의 탄탄한 자치역량이 민관협치를 통해 꽃 피었다”고 평가했다.

#### 김종식 전 광주경제부시장 목포시장 출마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6·13 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시장은 12일 목포종합수산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의 늪에 빠진 목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미래 도약을 위한 먹거리 확보와 목표의 브랜드까지 창출을 위해 지방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목포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출마 선언 장소를 경제 현장인 서민들이 많이 찾는 시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시장은 서남권 경제통합 실현, 역동적인 경제도시 만들기, 힐링 관광도시 조성, 원도심 명소 만들기, 따뜻한 목포공동체, 교육도시 목표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놨다.

김 전 부시장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신안 부군수, 영암 부군수, 목포 부시장, 민선3~5기 완도군수 등을 역임했다.

#### 정중순 장흥군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



장흥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무소속 정중순(63) 전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이 12일 저서 ‘장흥의 희망을 디자인하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한호선 전 농협중앙회장, 현의승 전 농민신문 대표를 비롯해 지역주민 8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전 본부장은 이날 “지난 2014년 장흥군수에 출마해 낙선한 후 떠나지 않고 4년동안 200회가 넘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고향을 지켜왔다”며 “장흥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일꾼과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h3>영광주택매매(급매)</h3> <p>전원주택(영광읍)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주인직매 010-6670-9800</p>	<h3>신축 원룸 매매 (원룸전문)</h3> <p>·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p> <p>·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p> <p>▶ 매가 8억 5천만</p> <p>① 월곡동,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주인집거주 ▶매가 9억5천만 ②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 5천만</p> <p>010-7384-7800 010-6670-9800</p>	<h3>법률 경매 (주대신경매)</h3> <p>1)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p> <p>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비됨)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천</p> <p>3) 담양군 담양읍 (무인빌) 감정 30억2천4백→최저 16억9천</p> <p>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9억 3천 → 최저3억 3천</p> <p>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p> <p>6) 광산구 신창동 (원룸) 감정:3억8천2백 → 최저:3억8천2백</p> <p>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 13억1천9백 → 최저 13억1천6백</p> <p>8) 순천시 조례동 (목욕탕) 감정 39억2천5백 → 최저 27억4천7백</p> <p>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숙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p> <p>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p> <p>11)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주택)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p> <p>1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p> <p>A.P.T·주택·공장·토지 (기타)</p> <p>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p> <p>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p> <p>③ 남구 주월동 (무동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p> <p>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p> <p>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빌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p> <p>⑥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p> <p>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p> <p>⑧ 광산구 삼거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p> <p>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p> <p>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p> <p>010-6670-9800 062)382-5500</p>	<h3>경매교육 (3월초 개강)</h3> <p>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p> <p>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p> <p>3) 경매 평생반 ▶ (특수경매,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진행</p> <p>경매물건 추천</p> <p>① 북구 용평동 (12층 7층상가) 주치원비 (실명시 100평)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4억6천</p> <p>② 서구 치평동 해광한신 (24평) 감정가 1억5천8백 → 최저가 1억1천</p> <p>③ 서구 마륙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백</p> <p>[ 배우면서 컨설팅가능(경험자환영) ] 사무실 프리 근무하실분</p> <p>010-6670-9800 062)382-5500</p>
--	--	--	--